

## 보 도 설 명 자 료

('22. 3. 2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부산형 일자리 기업인 코렌스EM의 전기차 동력부품 공급  
계약이 파기되어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 
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

(3.28일자 서울경제 「'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' 무산 위기」 보도에  
대한 설명)

◇ 3.28일자 서울경제 <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 무산 위기> 기사에  
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◇ 부산형 일자리 기업인 코렌스EM의 전기차 동력부품 공급계약이  
파기되어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는  
사실이 아님

### 1. 기사내용

- 부산 지역기업인 코렌스EM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A사와 체결한  
전기차 부품 공급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형 상생  
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

###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부산형 일자리 기업인 코렌스EM의 전기차 동력부품 공급계약이  
파기되어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는  
사실이 아님

- 코렌스EM은 글로벌 완성차업체 A사와의 공급계약이 아닌 다른 국내·외 업체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부산형 일자리 사업을 신청('20.12월)하였으며, '21.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
- 코렌스EM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A사와 체결한 전기차 동력부품 공급 계약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전 취소된 바 있으나,
- 그와 관계 없이, 국내 완성차 업체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안전성 등 인증·테스트 과정에 있으며, 해외의 또다른 기업과는 계약 준비 단계에 있음
- 코렌스EM은 금년 4월 시험생산을 거쳐 6월부터 일부 물량 납품, 10월 준공 및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며 부산형 일자리는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

※ 문의 : 지역경제진흥과 김재은 과장(044-203-4420)  
서두원 사무관(4405), 김민지 사무관(4425)